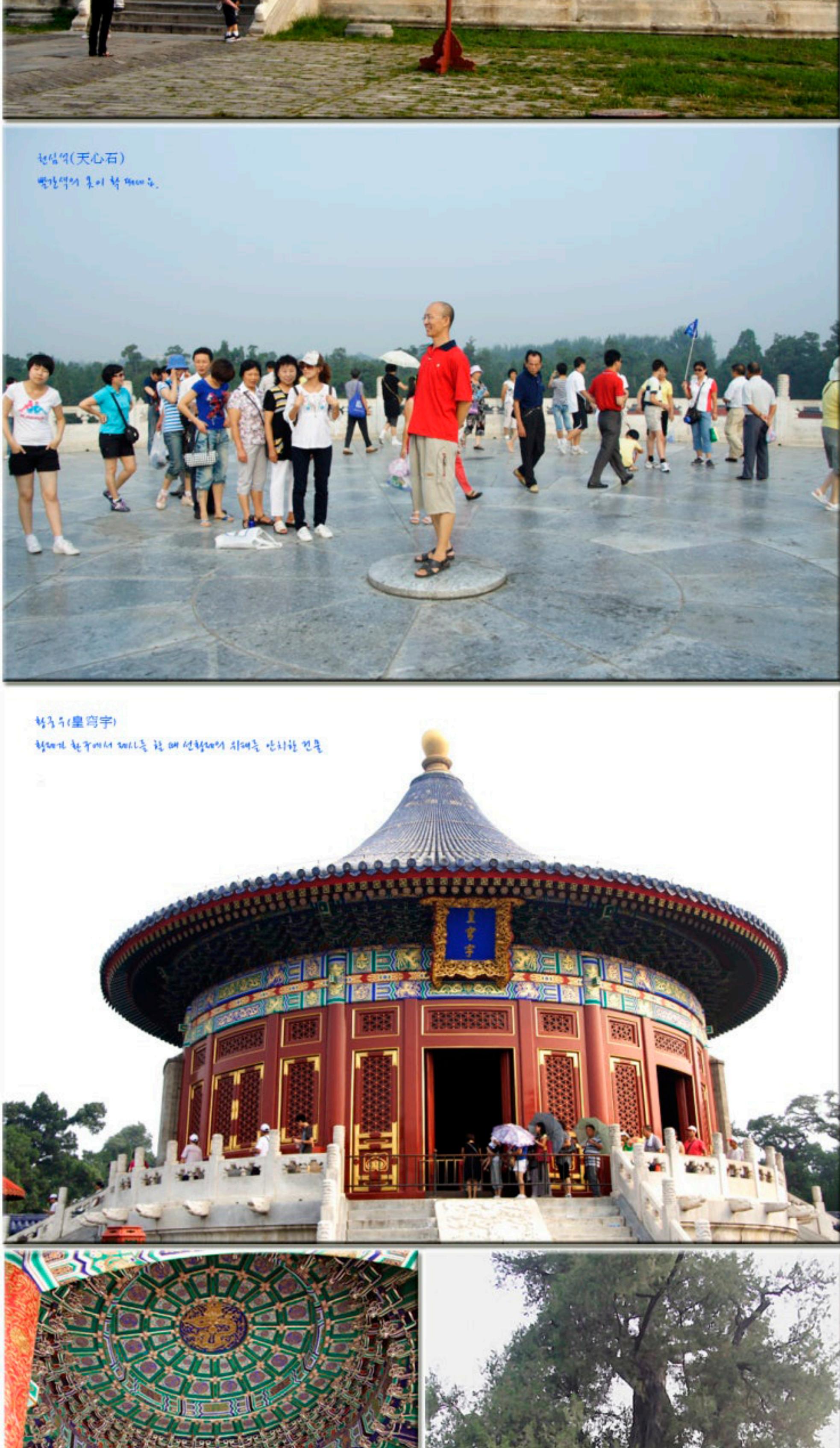


오늘의 일정은 천단공원 - 옹화궁 - 국자감 - 유플라공원을 돌아볼 계획이다.
숙소 앞에서 다른이 천단공원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문 바로 버스를 타고 천단공원 남문에 내려 공원을 떠졌다. 입구에서부터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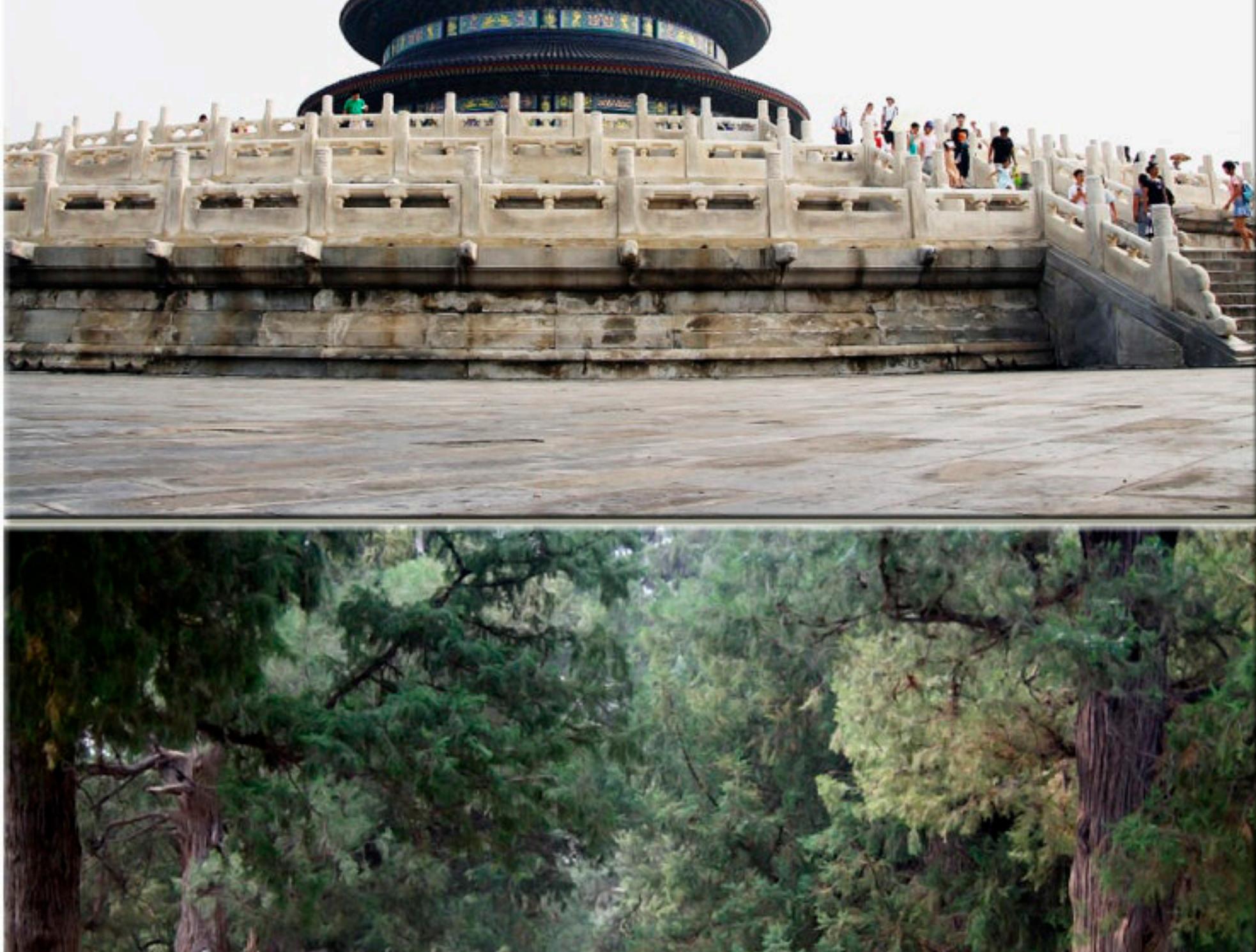
천단(圜丘)

한 벽돌들은 원 3층의 기단이며 첨대는 충성의 천황역에서 기단을 훔쳤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속수 총수를 찾고자 유인원 벽돌을 털어왔다며.



천상석(天心石)

별자리의 힘에 힘쓰고 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통해 성직자 위하여 대접을 제공하는 것이다.

